

[資料解題]

『紅樓夢』學術資料 目錄 및 解題(1)*

崔溶澈**

<목 차>

- | | |
|----------------------|--------------------|
| 1. 紅樓夢의 筆寫本 및 後期版本 | 2. 紅樓夢의 樂善齋本 및 國譯本 |
| 3. 紅樓夢의 海外 翻譯本(日, 英) | 4. 紅樓夢의 續書資料 |
| 5. 紅樓夢의 評點資料 | 6. 紅樓夢의 傳播資料 |
| 7. 曹雪芹의 家世資料 | 8. 紅樓夢의 書目 및 書誌資料 |
| 9. 紅樓夢辭典과 索引 및 註釋 | 10. 紅樓夢의 碩博士 學位論文 |
| 11. 紅樓夢의 定期刊行 學術誌 | 12. 紅樓夢展示會 및 國際會議 |
| 13. 曹雪芹과 紅樓夢관련 文物 | 14. 紅樓夢 主要 學術論著目錄 |

一. 資料分類解題

1. 紅樓夢의 筆寫本 및 後期版本

曹雪芹 생전에 나온 미완성의 필사본 『脂硯齋評本石頭記』는 현재 각각 다른 계통의 것이 12종이 있으며, 1791년 程偉元 刊本 이후 청대 후기의 평점본으로는 삼가평본이 유명하다. 民國 이후 程乙本の 白文本이 널리 유행하고 근년 들어 다시 다양한 교감본과 주석본이 전해지고 있다. 연구용으로 7, 80년대에는 俞平伯교주

* 본 目錄은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에서 2004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開催한 「紅樓夢學術資料 展示會」의 出品資料 및 기타 主要 學術資料를 모은 「解題集」을 再整理한 것임.

** 高麗大 中文科 教授

본이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은 中國藝術研究院 紅樓夢研究所에서 교감한 新校注本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는 『戚序本』을 근거로 삼았고, 후자는 『庚辰本』을 교감원본으로 삼아서 만든 것이며, 후40회 부분은 둘 다 『程甲本』을 쓰고 있다.

2. 紅樓夢의 樂善齋本 및 國譯本

우리 나라 昌德宮 樂善齋에 남아있던 原文對譯注音의 궁체필사본 『홍루몽』은 1884년 무렵에 만들어져 紅學史上 最初의 完譯本이다. 20세기 전반기에는 梁白華와 張志瑛의 신문 연재 번역이 있었으며, 광복이후 비로소 다양한 번역본이 나왔다. 김용제와 이주홍번역본이 널리 전해졌고 90년대 들어서는 연변과 북경에서 나온 한글 번역본이 서울판으로 재간행되었다. 후에 개사본이나 축소본 등이 나오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역주본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려대 홍루몽연구회에서 『신교주본』을 근거로 역주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紅樓夢의 海外 翻譯本(日, 英)

日本에서는 19세기말부터 일부분의 번역이 시작되었고 1916년 전반부인 39회까지만 번역한 미완성본이 나왔고 1920년대에 전80회를 대상으로 완역된 주석본이 나온다. 후에 松枝茂夫와 伊藤漱平의 역주본이 오늘날까지 크게 유행하고 있다. 英譯本은 1929년 미국 유학중이던 王際眞에 의해 절역본이 나온 바 있지만, 완역본으로는 중국에서 나온 楊憲益·그레이디스 양의 공동번역(A Dream of Red Mansions)과 영국인 데이비드 호크스·존 민포드의 번역(The Story of the Stone)이 유명하다. 전자는 전통적 중국 용어를 직역하는 방법으로, 후자는 서방 문화에 걸맞도록 의역하는 방법으로 번역하였다. 이밖에도 李治華의 프랑어 번역본이 유명하며 러시아 번역본 등도 있다.

4. 紅樓夢의 續書資料

홍루몽의 속서는 건륭말기부터 가경연간에 이미 수종이 나와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청대 말기까지 육대 장편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속서가 출현하였다. 지금 널리 전해지는 것만도 15종에 이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나라 낙선재 번역소설 중에는 『後紅樓夢』, 『續紅樓夢』, 『紅樓復夢』, 『紅樓夢補』, 『補紅樓夢』 등의 주요 續書 五種이 번역되어 있다는 점이다. 속서의 해외 번역은 유래가 거의 없다.

5. 紅樓夢의 評點資料

초기 필사본의 脂硯齋평점은 단순히 소설분석과 감상에만 유용할 뿐 아니라, 조설근의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창작배경과 소설창작의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연구사에서 매우 중시되었다. 民國이후 지평본의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판본에서의 脂評을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연구성과가 많이 나왔다. 초기의 俞平伯과 후기의 陳慶浩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청대후기의 王希廉과 張新之, 姚燮 등의 삼가평을 비롯한 기타 평점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하여 관련 자료가 속속 정리되어 공개되고 있다.

6. 紅樓夢의 傳播資料

홍루몽은 소설작품이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해짐에 따라 곧 홍루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홍루몽의 내용을 재구성한 희곡작품과 설창, 곡예 등의 민간예술 작품이 대량 출현하였다. 홍루문화는 다양한 예술방면에서 빛을 발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도 판화와 회화, 원문의 각인 등의 작품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7. 曹雪芹의 家世資料

조설근의 가문과 생애에 관련된 연구는 홍루몽 연구의 중요한 한 분야를 차지한다. 조설근의 원적을 둘러싼 극심한 논쟁은 홍학의 본질을 넘어서서 심지어 曹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의 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조부 曹寅이다. 康熙황제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오랫동안 江寧織造를 관리하면서 문화계의 영수로서 시사와 희곡을 창작하고 명을 받아 『全唐詩』 등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曹寅의 『棟亭集』을 비롯하여 강녕직조 등에서 올린 奏摺, 조설근과 깊은 교류를 나눈 敦敏, 敦誠 등의 시문집 등이 주요 자료가 된다.

8. 紅樓夢의 書目 및 書誌資料

홍루몽 관련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연구서목을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一粟(周紹良, 朱南統)의 『홍루몽권』과 『홍루몽서록』이다. 전자는 청대이후 관련 자료집이고 후자는 관련서목이다. 후에 다시 胡文彬, 朱一玄의 서목과 자료집이 나왔다. 홍콩과 대만에서도 연구 논저 목록 등이 계속 나왔다. 국내에서는 예하출판사에서 한차례 나온 바 있다.

9. 紅樓夢辭典과 索引 및 註釋

일반적으로 소설사전은 감상사전과 항목별 풀이사전, 그리고 어휘사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홍루몽의 경우 각 분야별로 모두 사전이 만들어졌다. 홍루몽의 어휘는 근현대 언어를 연구하는데도 좋은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어휘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일본 宮田一郎의 『홍루몽어휘색인』이다. 일본에서는 중국소설의 어휘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종합적인 항목별 풀이사전으로는 홍루몽

연구소에서 펴낸 『홍루몽대사전』이 비교적 완벽하다. 이밖에도 수백명에 이르는 인물에 대한 검색을 위하여 인명사전 혹은 색인이 나왔으며 詩詞曲賦에 대한 주석, 난해한 구절과 典故에 대한 풀이 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10. 紅樓夢의 碩博士 學位論文

홍루몽 관련 학위논문으로는 1934년 프랑스에서 제출한 李辰冬의 『홍루몽연구』가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어로 나온 이 책은 1942년 중국어로 重慶 正中書局에서 나온 뒤에 널리 알려졌다. 1960년대에는 홍콩중문대학에서 陳慶浩의 석사논문이 나왔고, 이어서 대만에서 70년대부터 적지 않은 학위논문이 나왔다. 1980년 대만에선 王三慶에 의해 처음 박사논문이 나왔으며 한국학자의 논문도 80년대 이후 대만에서 여러 편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1979년과 1989년에 각각 高政喜의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이 가장 먼저 나와 본격 연구의 길을 열었으며 이후 국내 및 중국대륙에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에서 진경호의 『지연재 평어 연구』 이후 미국에서 여러 편의 박사가 배출되어 간행되었다. 신시기 이후 중국에서의 학위논문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예술연구원 홍루몽연구소에서도 직접 배출한 석사 연구자가 나오고 있다.

11. 紅樓夢의 定期刊行 學術誌

홍루몽을 연구대상으로 한 전문학술지는 1960년대 홍콩中文大學新亞書院에서 만든 『紅樓夢研究專刊』이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潘重規교수가 주편하던 이 간행물은 홍콩에 이어 후에는 臺北에서도 나왔지만 모두 12집을 내고 끝났다. 중국대륙이 개혁개방된 이후 1979년에 두 가지의 전문지가 탄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하던 무크지 『紅樓夢研究集刊』은 총 14집을 내고 마감하였지만, 중국예술연구원 홍루몽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계간지

『紅樓夢學刊』은 초기에 天津의 백화문예출판사에서 나오다가 1985년이후 北京의 문화예술출판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 금년도에 102집을 넘어서고 있다. 이밖에 1986년 貴州省紅學會에서 펴내는 『紅樓』(주편 梅玖)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간행하여 이미 70여집을 냈다. 대만에서는 한때 『石學雜誌』(주편 張欣伯, 1988)라는 부정기 간행물이 나온 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밖에 중국인민대학에서 간행하는 複印報刊資料의 하나로서 『紅樓夢研究』가 계간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중국고대근대문학연구』에 흡수되었다.

12. 紅樓夢 展示會 및 國際會議

홍루몽 국제회의는 1980년 6월 미국의 위스컨신대학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중국에서 周汝昌, 馮其庸, 陳毓巽, 대만에서 潘重規, 일본에서 伊藤漱平, 영국에서 데이비드 호크스(중국명 霍克斯) 등이 참가하고 미국내 홍학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홍루몽의 붐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정식으로 홍루몽학회를 창설하는데 자극을 주었다. 발표논문집은 후에(1983 ??) 홍콩中文大學에서 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1986년 하얼빈에서 첫 국제홍학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1992년 강소성 양주, 1994년 대만 중앙대학, 1997년 북경 그리고 올해 2004년 가을 다시 양주에서 국제회의가 열려 비록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국제홍학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홍루몽이라는 단일주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홍학사상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3. 曹雪芹과 紅樓夢관련 文物

조설근의 가문에 관련된 자료로는 『五慶堂重修曹氏宗譜』 등의 족보와 가씨가문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는 문화인물 曹寅의 시문집 『연정시초』, 『연정사초』 등을 비롯하여 황제와 교류한 상주문 기록에 해당하는 『奏摺』 등도 있다. 또한

홍루몽 관련 문물로서는 청대 후기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을 일부 전시한다.

14. 紅樓夢의 主要 研究論著

홍루몽관련 연구논저는 清代부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특히 民國이후 新紅學시절부터 폭발적으로 출현하여 20세기 三大 顯學의 하나로서 수많은 저술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거론할 만한 일부 논저를 선별하여 목록만 소개하며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한 해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二. 學術資料目錄

1. 紅樓夢의 筆寫本 및 版本

『甲戌本(乾隆甲戌脂硯齋重評石頭記)』(影印 1冊), 胡適記念館 1960, 1965. 臺北

『홍루몽』판본사상 최초의 필사본, 권두에 ‘至脂硯齋甲戌抄閱再評, 仍用石頭記’의 구절이 있어서 甲戌本으로 명명되었다. 갑술년은 1754년임. 원래 청말 劉銓福의 舊藏本으로 胡適에 의해 발굴되어 연구되면서 曹雪芹의 自傳說이 주장되었다. 現存 16回은 過錄本임. 대만 호적기념관, 홍콩 友聯出版社 등에 의해 北京과 上海에서 영인 출판하였다. 원본은 美國코넬대학 도서관에 소장중임.

『脂硯齋重評石頭記甲戌本』(線裝本, 4冊),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北京

曹雪芹逝去250주년 기념으로 새로 線裝本으로 간행하여 揚州 國際紅樓夢學術研討會에서 배포함.

『己卯本(脂硯齋重評石頭記)』, 里仁書局 1980 臺北

본 필사본의 회목에 '脂硯齋凡四閱評過', '己卯冬月定本'의 구절이 있어서 己卯本으로 명명되었다. 기묘년은 1759년이다. 祥(允祥), 曉(弘曉) 등 글자의 避諱가 있어 怡親王府 필사장본으로 확인되었다. 現存 필사본은 38回분량과 별도의 3회와 결손된 2회분량이 있어 전체적으로 약 43회가량이 된다. 원래 董康 舊藏本으로 陶洙가 수장했다가 현재 北京圖書館에 소장되었고 5회 분량은 歷史博物館에 소장 중임. 上海古籍出版社 영인본이 있고 臺灣 里仁書局에서 다시 영인함

『庚辰本(脂硯齋重評石頭記)』, 宏業書局 1978 臺北

본서는 현존하는 초기 필사본 중에서 가장 많은 78회 분량이 남아 있다. 회목 부분에 '脂硯齋凡四閱評過', '庚辰秋月定本'의 구절이 있어서 庚辰本으로 명명되었다. 기묘본 다음해에 재필사 된 정리본이다. 庚辰年은 1760년으로 이상 세 필사본이 모두 조설근의 생전에 나온 것이다. 전80회부분에서 제64회, 67회가 빠져 있다. 1932년 徐星曙가 입수하였는데 현재 北京大學圖書館에 소장중이며 文學古籍刊行社, 人民文學出版社 영인본 등이 있으며 臺灣에서는 宏業書局에서 그대로 翻印하였다.

『戚序本(國初鈔本原本紅樓夢)』, 臺灣學生書局 1976 臺北

中華民國 元年(1912)에 상해 有正書局에서 출판된 戚寥生서문의 필사본이다. 전 80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전후 評語가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 國初라고 하는 것은 民國원년을 의미한다. 원본에 해당하는 판본은 南京圖書館에는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별도의 판본으로 보고 이름을 달리하여 '戚寧本' 혹은 '南圖本'이라고도 부른다.

『甲辰本(夢覺主人序本)』(未展示)

몽각주인의 서문이 쓰여진 건륭 갑진년(1784)으로 인해 각각 명명되었다. 1953년 山西에서 발견되었다고 脂硯本이라고도 한다. 모두 80회가 들어 있으며 현재 北京圖書館에 소장중이다.

『石頭記(列藏本)』, 北京中華書局 1986 北京(未展示)

러시아 레닌그라드(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여 列藏本으로 명명되었다. 레닌(중국명 列寧)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쑤 35冊으로 원래 1832년에 러시아 正敎의 쿠렌체프가 북경에서 구입한 것인데 처음 러시아 외무부도서관

에 있다가 현재 동방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蒙古王府本石頭記』, 書目文獻出版社 1987 北京

北京琉璃廠에서 1960년 발견되어 北京圖書館에 收藏된 32책의 선장본인 이 책은 원래 청대 蒙古王府에서 소장되었던 것이라 하여 ‘蒙府本’으로 명명되었다. 『戚序本』과 유사하지만 서문이 없고 夾批가 대량 증보되었음.

『古本小說叢刊(第一輯:己酉本)』, 中華書局 1987 北京

己酉本是 吳曉鈴 소장본으로 기유년(1789)에 쓴 舒元煒의 서문으로 인해 명명되었으며 「舒元煒敘本」이란 명칭도 있다. 殘本 40회가 남아있는데 현재 북경도서관에 소장중이다.

『鄭振鐸藏殘本紅樓夢』, 書目文獻出版社, 1991

鄭振鐸 소장본이란 의미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제23회, 24회만 남아있는데 北京圖書館이 있다. 원문이 脂評本계통이지만 평어는 이미 없어진 상태다. 제목에서는 「石頭記」를 쓰고 있으나 中縫에서는 「紅樓夢」을 쓰고 있다. 俞平伯의 글을 代序로 쓰고 있다.

『鄭振鐸藏石頭記殘抄本』, 金壇古籍印刷廠, 2004

원본을 영인하여 선장본으로 인쇄했다. 鄭振鐸의 장서인도 붉은 색 인쇄. 曹雪芹 서거 240주년 기념으로 『紅樓夢』農工研究小組에서 영인.

『脂硯齋重評石頭記彙校』(5冊), 馮其庸主編, 紅樓夢研究所彙校, 文化藝術出版社, 1987

脂硯齋評本계통의 판본을 모두 모아 『庚辰本』의 구절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脂評本の 原文을 對照하여 그 異同을 밝힌 책이다. 초기 필사본의 판본교감을 위한 좋은 자료다.

『紅樓夢稿』, 聯經出版社, 1977 臺北

표지에 ‘紅樓夢稿’라고 쓰였으며, 120회 전체를 필사한 『홍루몽』판본으로 제78회 말미에 ‘蘭墅閱過’라는 구절도 있어 각각 ‘夢稿本’, ‘全抄本’, ‘高閱本’ 등의 명칭도 있다. 1959년 북경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圖書館에 소장중이다. 中華書局(1963)에서 영인할 때 이때 「乾隆抄本百廿回紅樓夢稿」로 題名을 달았다. 臺灣에서는 聯經(1977)에서 재영인하였다. 후에 上海古籍出版社(1984)에

서도 영인하였다. 전80회 부분이 脂硯齋評本계열이어서 판본학적 가치가 높으며 후40회도 續書문제의 고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程甲本紅樓夢』(6冊), 書目文獻出版社, 1992 北京

程偉元과 高鶚에 의해 만들어진 120회본 『홍루몽』은 辛亥年(1791) 겨울에 萃文書屋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정위원간행본(程刻本)의 첫판본이란 의미로 명명되었다. 이 책의 권두에는 馮其庸의 「序論程甲本問世的歷史意義」가 수록되어 있다. 程偉元의 서문에 의하면 120회의 회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80회만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백방으로 조사하여 20회부분을 수집하고 또 우연히 녀마장수에게서 10여회를 구하여 高鶚으로 하여금 전후 맥락을 잇도록 청하여 완전한 120회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高鶚의 續書說은 신홍학 초기의 胡適, 俞平伯 등의 주장이었으나 오늘날 오히려 정위원과 고악의 공헌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程乙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台大藏本)』, 廣文書局 1977 臺北

程甲本에 이어 이듬해인 壬子年(1792) 봄에 나온 수정본이다. 정위원(小泉)과 고악(蘭墅)이 공동으로 작성한 「引言」 7개조항이 있다. 程刻本의 三版說과 四版說 등은 여전히 논란중에 있지만 廣文書局本은 臺灣의 徐仁存의 연구에 의해 대만대학본은 「정을본」으로, 청석산장본을 「정병본」으로, 아동중배본은 「정정본」으로 각각 명명한 것이다. 현 臺大藏本은 원래 福州의 烏石山莊(龔易圖)장서인데 1929년 당시 臺北帝國大學에서 구입한 것이다. 「程序」와 「高敍」가 정교하게 재초록된 것이고, 「引言」은 누락되었다.

일반적으로는 胡適이 발굴하여 亞東圖書館에서 재 간행한 「亞東重排本」을 程乙本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대륙에서 70년대말 이전에 널리 전해진 인민문학출판사본은 바로 이 계통이다.

『程丙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靑石山莊本)』, 廣文書局 1977 臺北 *(未展示)

徐仁存의 주장에 의하면 1793년 간행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만 韓鏡塘(胡天獵) 소장본(원본24책)으로 1961년 자신의 靑石山莊에서 20책으로 영인 간행하였다고 한다. 원본은 후에 美國에일대학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程序」와 「高敍」는 베껴 넣은 것이고 「引言」은 목활자 인쇄다. 胡文彬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정갑본

과 정을본을 배합하여 엮은 인쇄본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上海 顧鳴塘이 발굴한 「程丙本」이 별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논자들은 정각본의 三版說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출판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程丁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亞東重排本)』, 廣文書局 1977 臺北 *(未展示)

徐仁存의 연구에 근거하여 廣文書局에서 영인 간행한 亞東重排本이다. 胡適이 발굴하여 1927年 현대식 표점부호로 간행하여 가장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原來 1921년 上海아동도서관에서는 程甲本 계열인 王希廉평본을 저본으로 하여 현대 표점본을 간행하면서 胡適, 蔡元培, 陳獨秀 등의 관련 글을 신기도 하였었다. 胡適 소장원본은 행방을 알 수 없고, 본 판본의 명칭에도 혼란이 야기되어 那宗訓은 이를 『廣丁本』으로 지칭하고 있다.

『東觀閣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 廣文書局 1977 臺北

程本이후의 가장 이른 翻刻本으로 程甲本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판본인데 1795년경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東觀閣은 北京의 출판사로 훗날 善因樓, 寶文堂 간본이 모두 이를 재번각한 것이다. 程甲本이 영인출판되기 이전에는 이 판본을 연구용으로 대신 활용하기도 하였다.

『本衙藏板本紅樓夢』, 韓國 奎章閣所藏本(一部隱衍印)

총 24책, 표지에 회목을 적었고 선장본 우철 4공침. 서명 「新鐫全部/繡像紅樓夢/本衙藏板」, 권두에 「高鄂跋」, 「程偉元序」, 「目錄」, 「繡像(20頁, 前圖後贊)」의 순서로 수록. 「李王家圖書之章」의 장서인.

『王希廉評本新評繡像紅樓夢全傳』, 廣文書局 1977 臺北

後期 版本중에서 전형적인 評點本으로서 가장 먼저 나온 판본이다. 1832년 雙清仙館에서 간행되었으며 '洞庭王希廉雪香評'으로 서명하였다. 청대후기 三家評本으로 묶여져 널리 전해진다.

『紅樓夢』(第2函), 清刊本, 잔존 5책, 분량은 제43-46, 52-55, 56-59, 60-63, 64-68회임.(박재연기증본) 청대 후기간본, 반엽 11행 22자, 행간에 비평이 있다. 동관각이나 삼양당이후의 계통으로 생각됨.

『精批補圖大某山民評本紅樓夢』, 廣文書局 1973 臺北

清末 姚燮(大某山民)의 評點本으로 실제로는 삼가평이 실려있다. 현대에 와서 별도로 『삼가평본』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全圖增評金玉緣』(1函, 淸石印本, 잔존 8책, 본문 앞에는 「增評補圖石頭記卷首」로 표기함. 별지로 만든 「大觀園圖」가 있으며 후에 일본 등지의 번역본에서 많이 활용하였음.

『全圖增評金玉緣』(1函, 淸石印本, 잔존 7책, 새로 장정한 표지에 회목을 필사함. 藏書印에 「松雲」, 「張炳星章」 등이 보임.

『評註金玉緣』, 鳳凰出版社, 1974 臺北

청말 三家評本으로 한때 『紅樓夢』이 禁書로 되자 출판사에서 『金玉緣』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1884년 「增評補像全圖金玉緣」의 이름으로 간행된 石印本으로 일대를 풍미하였다.

『紅樓夢(三家評本)』, 上海古籍出版社 1988 上海

淸代의 三大 評點家인 王希廉(護花主人), 張新之(太平閑人), 姚燮(大某山民)의 評을 모아 새로 간행한 책이다.

『紅樓夢(黃小田評點本)』, 黃小田評, 黃山書社 1989 合肥

황소전 평점본으로 청대 후기에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石頭記索隱』, 蔡元培, 廣文書局 1980 臺北

색은파의 대표인 蔡元培는 홍루몽의 창작배경을 反淸復明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胡適과 일대 홍학논쟁을 벌이게 된다.

『紅樓夢索隱』, 王夢阮·沈瓶庵, 臺灣中華書局 1970 臺北

색은파의 주요 저작으로 홍루몽의 창작배경으로 청초 順治帝의 오대산 출가사건에서 찾고자 하였다.

『紅樓夢』, 世界書局, 1959 臺北

원래 上海世界書局에서 1934년에 『足本紅樓夢』으로 간행하였던 것인데 저본은 『정을본』 계통의 『亞東重排本』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대만에서도 이를 재간행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紅樓夢』, 遠東圖書公司, 1959 臺北

대만에서 간행된 통행본 중의 하나임.

『紅樓夢』, 三民書局, 1972 臺北

『중국고전명저』의 하나로 나온 일반 통행본의 하나임.

『紅樓夢』(4冊), 人民文學出版社, 1973 北京

원래 1957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程乙本』을 저본으로 하고 7개판본을 참고한 새로운 교감본이다. 후에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1979년까지 계속 나와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판본이다.

『紅樓夢八十回校本(4책)』, 俞平伯校訂, 香港中華書局 1974 香港

『戚蓼生序文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정본을 만들었으며 脂評本을 저본으로 교감한 최초의 간본으로 원판본은 1958년 중국의 人民文學出版社에서 간행된 것이다. 후에 홍콩, 대만 등지에 널리 전해졌다. 7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었으며 일역본의 일부(伊藤漱平本)도 이를 저본으로 하였다. 후40회는 『정갑본』을 따르고 있다. 본문2책(전80회부분), 교감기 1책, 부록1책(후40회부분)으로 구성되었다.

『校本紅樓夢(1책)』, 俞平伯校本, 華正書局 1980 臺北

俞平伯교본을 본문과 부록을 합쳐서 120회를 1권으로 만든 것이다. 별도의 1권 짜리 교감기는 간행하지 않았다.

『紅樓夢』(新校注本, 3冊), 紅樓夢研究所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82, 北京

전80회는 『庚辰本』을 주요 저본으로 하고 후40회는 『程甲本』을 근거로 교감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교주본이 탄생된 것이다. 신교주본이라 불리기도 한다. 80년대 중반이후의 홍학계 연구자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紅樓夢』(新校注本, 2冊), 紅樓夢研究所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94, 北京

1982년판의 교감과 주석을 다시 정리하여 만든 교주본이다. 원래 3권짜리를 2권으로 묶어서 여전히 인민문학출판사에서 냈다. 전자와의 사이에 쪽수가 달라졌으므로 辭典 등을 이용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革新版紅樓夢校注』(新校注本, 3冊), 里仁書局 1984 臺北

臺灣 里仁書局에서는 이보다 앞서 1983년 『彩畫本紅樓夢校注』(3冊)을 낸 바 있는데 『정을본』을 따른 인민문학출판사본(1979년판)을 쓰고 대륙의 화가인 劉트宅과 程十髮의 칼라판 삽화를 넣었다. 하지만 그 직후 1982년판이 완전히 새로운

교주본(경진본 계통)임을 알게 되어 곧 이 책을 새로 내게 된 것이다. 같은 삽화를 넣고 명칭을 혁신판하고 대륙판의 간체자를 번체자로 바꾸었다.

『校定本紅樓夢』, 潘重規主編, 中國文化大學 1983 臺北

『紅樓夢稿本』을 저본으로 교정을 한 판본으로 원문에 붉은 색 글자를 칼라로 넣어 인쇄하였고 교감기를 별도의 책으로 간행하였다. 潘重規선생을 중심으로하는 문화대학 홍루몽연구팀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성과다.

『紅樓夢』(校注本, 4冊), 啓功校注, 北京師範大學 1987 北京

北京師範大學에서 낸 120회본 『정갑본』을 저본으로 만들어낸 교주본이다. 다른 판본과 달리 종서로 배인하였다. 만주족 학자로 저명한 啓功의 주석이 실렸다.

『紅樓夢』(1책), 百花文藝出版社, 1999, 天津

인민문학출판사 신교주본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교주본으로 낸 간본이다. 任少東 등의 교감자가 참여하였는데 실제로 부분적인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출판사마다 경쟁적으로 『홍루몽』을 간행하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紅樓夢(鑑賞珍藏本)』(1冊), 寧波出版社, 2001 寧波

원본계통의 교감은 별로 권위가 있지 않으나 주석과 지연재 평어 등을 각 단락마다 삽입하여 참조하기에 편하도록 안배하였다. 감상용이라는 서명에 어울린다고 하겠다.

2. 紅樓夢의 樂善齋本 및 國譯本

『紅樓夢(樂善齋本, 原書 120冊)』, 李鍾泰等譯, 朝鮮高宗21年(1884)前後

일부 影印부분 전시, 단 原典의 原文부분은 붉은색 朱筆임. 총120책중에서 현재 117책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귀증본실에 소장중임.

『紅樓夢(樂善齋本, 影印本 15冊)』, 李鍾泰等譯, 亞細亞文化社 1988 서울

이가원교수의 주선으로 영인 출판. 누락된 3회부분은 대만 간행본으로 보충하였음. 원서를 일부 축소복사하였고 원문의 붉은색 朱筆을 살리지 못하고 흑백으로

인쇄함.

『紅樓夢(樂善齋本, 교주본 2冊)』, 李種泰等譯,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以會出版社, 2004 궁체필사의 한글고어를 입력하고 회목과 필요한 부분에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일부 주석을 각주로 달았음. 권두에 낙선재본 표지와 내용 일부를 영인 하여 붙였으며 부록으로는 乾隆辛亥(1791)程甲本『紅樓夢』을 영인 수록했다.

『後紅樓夢(樂善齋本, 교주본 1冊)』, 李種泰等譯,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以會出版社, 2004 궁체필사본을 입력하고 회목과 필요한 부분에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 주석을 각주로 달았음. 권두에 낙선재본의 표지와 내용을 일부를 영인하였으며, 부록으로 乾隆연간의 白紙本『全像後紅樓夢』원본을 영인하고 浙江圖書館소장 필사본『後紅樓夢』원본을 함께 영인하였다.

『續紅樓夢(樂善齋本, 교주본 1冊)』, 李種泰等譯,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以會出版社, 2004 궁체필사본을 입력하고 회목과 필요한 부분에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 주석을 각주로 달았다. 권두에 낙선재본의 표지와 내용을 일부를 영인하였으며 부록으로 嘉慶己未新刊『續紅樓夢』을 영인 수록했다.

『紅樓夢(樂善齋本, 교주본 2冊)』, 李種泰等譯,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以會出版社, 2004 궁체필사본을 입력하고 회목과 필요한 부분에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 주석을 각주로 달았음. 권두에 낙선재본의 표지와 내용을 일부를 영인하였으며 부록으로 嫻齋藏板『紅樓復夢』을 영인 수록했다.

『紅樓夢補(樂善齋本, 교주본 1冊)』, 李種泰等譯,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以會出版社, 2004 궁체필사본을 입력하고 회목과 필요한 부분에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 주석을 각주로 달았음. 권두에 낙선재본의 표지와 내용을 일부를 영인하였으며 부록으로 道光13년癸巳(1833) 藤花榭重刊本『紅樓夢補』를 영인 수록했다.

『補紅樓夢(樂善齋本, 교주본 1冊)』, 李種泰等譯,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以會出版社, 2004 궁체필사본을 입력하고 회목과 필요한 부분에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 주석을 각주로 달았음. 권두에 낙선재본의 표지와 내용을 일부를 영인하였으며 부록으로 嘉慶15년庚辰(1820) 本衙藏板『補紅樓夢』을 영인하여 수

록했다.

『紅樓夢』(연재138회), 梁建植, 『每日申報』 1918

우리 나라 최초의 현대식 번역 연재문으로 詩를 우리의 時調형식으로 번역하는 등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상세한 주석을 달기도 하였으나 중단되었다.

『紅樓夢』(연재17회), 梁建植, 『時代日報』, 1925

처음 연재가 중단된 이후 다시 시도한 양건식의 번역 연재문이나 17회를 연재하고 역시 중단되고 말았다.

『紅樓夢』(연재302회), 張志瑛, 『조선일보』, 1930-1931

일제시기에 두 번째로 시도된 번역 연재로서 구어체의 번역문이 특징이지만 1년여의 연재 끝에 결국 중단되어 아쉬움이 크다.

『紅樓夢』(2冊), 金龍齋譯, 正音社 1955 서울

광복이후 첫 번째로 간행된 번역본으로 전체 120회를 다루고 있으나 축약하였고 제목은 단구로 바꾸었다. 국내에 널리 전파되었다.

『紅樓夢』(5冊), 李周洪譯, 乙酉文化社 1969 서울

분량에서 거의 완역에 가까우나 중국원본을 사용하지는 않고 일역본을 참조하였다. 회목도 3자의 제목으로 압축하였다.

『新譯紅樓夢』(6책), 禹玄民譯, 瑞文堂 1982 서울

번역의 저본은 일역본을 사용하였으며 전반부에서는 상세하게 번역하였으나 후반부에 이르면 상당부분 축역되었다.

『紅樓夢』(1冊), 金相一譯, 徽文出版社 1974 서울

전체 120회를 대폭 축소하여 한 권으로 읽는 72장본으로 만들었다. 임의로 분단하여 소제목 붙이고 있다.

『曹雪芹紅樓夢』(1冊), 金河中譯, 金星出版社 1982 서울

역시 전체를 축소하여 73장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은 짧으나 권말 부록으로 조설근상, 해설, 홍루몽연표 등을 자료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新譯紅樓夢』(5冊), 吳榮錫譯, 知星出版社 1980 서울

번역 저본은 이주홍본과 동일한 것으로 전체를 120장으로 고치고 회목을 자유

롭게 2자에서 4자 등으로 고쳤다.

『紅樓夢新語譯(1冊)』, 洙上古典研究會譯, 平民社 1988 서울

낙선재본의 표현이나 말씨를 참고로 하여 회원 11명이 공동번역을 시도하였으나 15회 분량만 번역되고 중단되었다. 실제 저본은 대만 里仁書局的 『彩畫本紅樓夢校注』(정을본 계통)이었다.

『홍루몽(紅樓夢), (4冊)』, 延邊大學翻譯小組, 延邊人民出版社 1978-1980 延吉

중국 연변대학의 許龍九교수 등 6명에 의해 번역된 4권 짜리 한글본이다. 1974년 인민문학출판사본을 저본으로 사용했는데 곧 정을본 계통이다.

『홍루몽(紅樓夢), (5冊)』, 朝鮮文翻譯組, 北京外文出版社 1978-1982 北京

북경외문출판사의 安義雲, 金光烈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같은 출판사의 영문판(楊憲益 등 번역)과 동일한 체제와 삽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80회는 『戚序本』을, 후40회는 『程乙本』을 저본으로 사용했다.

『紅樓夢連環畫』(번역연재), 『中國語世界』 1984년9월-1986년12월까지 25회 연재

설명에 의하면 홍콩 江南春 등이 그린 만화(新雅)를 번역한 것이다. 첫 번째 제목은 『亂判葫蘆案』(멋대로의 호리병박 사건)이다. 중단된 시점은 불명.

『紅樓夢(6冊)』, 許龍九等(延邊本), 圖書出版藝河 1990 서울

연변본을 운문하여 서울판으로 낸 번역본으로 제7권째는 허룡구, 정재서편으로 『홍루몽 해설 및 연구자료집』을 추가로 간행(1991)했다.

『紅樓夢(6冊)』, 許龍九等(延邊本), 東光出版社 1990 서울

연변본의 서울판으로 원래의 회목을 생략하고 별도의 단구를 만들어 넣었고 일부 한자는 병기하지 못했다.

『完譯紅樓夢(7冊)』, 安義運·金光烈(外文本), 青年社 1990 서울

북경본을 서울판으로 운문하여 간행한 것이다. 회목과 본문중의 시사에는 한자 원문을 병기하고 제1권 권말에 최용철의 「해설문」이 수록되었다.

『紅樓夢(7책)』, 安義運·金光烈(外文本), 삼성출판사 1994 서울

북경본을 서울판을 운문하여 다시 간행한 것이다. 역자 안의운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북경외문출판사의 『홍루몽』, 『서유기』 등의 고전소설을 삼성출판사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紅樓夢』(연재 34회), 姜龍俊역, 『토요신문』연재, 1990

매주 한차례씩 번역을 연재하였으나 결국 중단되었다.

『紅樓夢(1책)』, 홍상훈, 이영섭 등 9명, FUN & LEARN, 1996

포켓용으로 만든 소형 책자로서 3장의 내용이 압축되어 번역되었다. 영문판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고유명사 등을 중국발음으로 처리했다.

『紅樓夢(3冊)』, 趙星基개편, 민음사, 1997

『한국경제신문』에서 1995년부터 613회 연재된 개역본으로 전체를 총12부로 나누었으며 임의대로 원전에 없는 성애묘사를 대량 넣었다.

3. 紅樓夢의 翻譯本(日語, 英語)

『新譯紅樓夢』(1책), 岸春風樓(영인자료). 文教社, 1916. 日本國會圖書館 소장본,

20세기 이후 본격적인 번역본으로 시도되었으나 내용을 각 회별로 축역한 것이다. 원래 3권으로 예정되었으나 39회를 수록한 제1권만 간행되었다.

『紅樓夢(3冊)』, 幸田露伴·平岡龍城共譯并註, 國譯漢文大成 1921 東京

일본 최초의 전80회 완역본이다. 공동 명의의 번역본이나 실제 번역은 주로 平岡龍城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 한문대성본 역본은 당시의 일본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紅樓夢(12冊)』, 松枝茂夫譯, 岩波書店 1972-1980 東京

松枝茂夫의 번역은 1940-1951년 사이의 번역(14권본)이 있으며, 후에 판본을 바꿔 재번역을 시작하여 12권으로 완성하였다. 지금 널리 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부 번역본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紅樓夢(3冊)』, 伊藤漱平譯, 平凡社 1967-1970 東京

伊藤漱平의 번역은 1957-1960년 사이에 「중국고전문학전집」의 하나로 완역하였는데 1967-1970년 사이에 「중국고전문학대계」의 하나로 재번역하였다. 저본은 유평백의 『홍루몽80회교주』본을 사용하였다. 1980년대의 한글 번역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紅樓夢(1冊)』, 富士正晴·武部利男, 河出書房, 1965, 東京

각 회의 내용을 축역하여 120회까지 모두 1권으로 엮은 번역본이다. 회목은 넣지 않았으며 권말에 小川環樹의 「해설」이 실려 있다.

『紅樓夢(3冊)』, 飯塚朗, 集英社, 1979-1980, 東京

飯塚朗의 번역은 「세계문학전집」의 하나로 번역되었는데 人民文學出版社本(程乙本을 저본으로 함)을 사용하였다.

『DREAM OF THE RED CHAMBER』(1冊): CHI-CHEN WANG, 1929, LONDON, NEW YORK, 1958 NEW YORK.

민국초기 미국에 유학 중이던 중국학자 王際眞에 의해 번역된 초역본이다. 총 39장과 1장의 서론으로 되어 있다. 1929년 런던과 뉴욕에서 발행되었고 1958년 마크 투웨인출판사에 다시 간행했다. 권두에 웨일리의 서문이 있다.

『THE STORY OF THE STONE』(5冊): DAVID HAWKES, JOHN MINFORD 1973.-1987, LONDON.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완역된 이 번역은 최근에 가장 널리 주목받고 있다. 번역의 스타일이나 명명법 등이 특이하다. 전80회까지는 Hawkes의 번역이고 후40회는 그의 제자인 Minford의 번역이다. 원작의 작자가 조설근과 고약으로 나뉘어졌다는 전제하여 고의로 번역자를 안배했다.

『A DREAM OF RED MANSIONS』(3冊): YANG HSIEN-YI :FOREIGN LANGUAGES PRESS. 1978. BEIJING

중국의 저명한 번역가 楊憲益과 그의 아내 레이디스楊의 공동 번역한 완역본이다. 전80회는 『戚序本』을 저본으로 하고 후40회는 『程甲本』을 사용하였다. 일찍이 영국을 유학한 저명한 홍학자 吳世昌이 교정하였다. 중국적 특색을 보여주는 번역으로 북경외문출판사의 중국문학 외국문 번역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4. 紅樓夢의 續書資料

『後紅樓夢』 逍遙子, 天一出版社, 1975 臺北

총 30회로 이야기가 『홍루몽』120회에 이어서 전개된다. 청대 乾隆, 嘉慶년간에 간본이 나와 널리 유행하였다.

『後紅樓夢』 逍遙子, 春風文藝出版社, 1985 瀋陽

1985년 1월 춘풍문예출판사에서 조판인쇄한 교점본으로 韓錫鐸, 卜維義가 교감하여 『홍루속서선』에 포함시켰다. 嘉慶년간에 간행된 黃紙本을 저본으로 하고 중국 19년에 간행된 上海大通書局의 활자교점본을 참조하였다.

『秦續紅樓夢』 秦子忱, 春風文藝出版社, 1985 瀋陽

진자침의 『속홍루몽』은 모두 30권으로 『홍루몽』120회에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1799년 抱瓮軒 판본이 처음으로 나왔다. 『속홍루몽』판본에는 1882년 抱瓮軒重판본 및 經訓堂판본, 1888년의 善友堂 판본이 있다. 1985년 春風文藝出版社는 『속홍루몽』을 『紅樓續書選』에 수록하여 출판하였는데 楊力生, 鐘離叔이 교감하였다. 후에 海圃主人의 속서 역시 서명이 『속홍루몽』이어서 혼동의 여지가 있어 춘풍문예출판사가 원래의 서명에 ‘秦’자를 덧붙였다.

『海續紅樓夢』 海圃主人, 春風文藝出版社, 1987 瀋陽

총40회로 되어있으며 이야기가 120회 뒤부터 전개된다. 嘉慶년간에 간본이 나왔으며 속표지 제목은 “속홍루몽신편”이다.

『紅樓夢補』, 歸鋤子, 天一出版社, 1975 臺北

총48회로 되어있다. 이야기가 고악의 속서 97회 뒤부터 이어져 임대옥의 죽음부터 전개되었다.

『紅樓夢補』, 歸鋤子,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총48회로 이야기가 고악의 속서 97회 뒤부터 이어져 임대옥의 죽음부터 전개되었다.

『紅樓夢補』, 歸鋤子, 春風文藝出版社, 1987 瀋陽

총48회로 이야기가 고악의 속서 97회 뒤부터 이어져 임대옥의 죽음부터 전개되었다.

『紅樓幻夢』, 花月癡人, 春風文藝出版社, 1988 瀋陽

모두 24회로 되어있으며 이야기가 97회 뒤에 이어서 전개된다. 체제는 『홍루몽보』와 같다. 도광22년(癸卯)에 나온 疎影齋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紅樓復夢』, 小和山樵南陽氏, 春風文藝出版社, 1988 瀋陽

총100회로, 『홍루몽』120회 뒤부터 이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1885년 金谷園에서 처음으로 간본이 나와 널리 유행하였다.

『紅樓圓夢』, 臨鶴山人,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총31회로 되어있으며 이야기가 120회 뒤에 이어서 전개된다. 1814년에 나온 紅薔閣 판각본이 최초의 판본이며, 본서는 이것을 저본으로하였다.

『紅樓夢影』, 雲槎外史,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운사외사의 『홍루몽영』은 총24회로 되어있으며 이야기가 『홍루몽』120회 뒤에 이어서 전개되고 있다. 1877년에 북경 聚珍堂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그 체재는 맨 앞에 1861년에 쓴 西湖散人의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다. 매회의 첫머리에 “西湖散人撰”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서호산인파 운사외사는 동일인물로 보인다. 『홍루몽영』은 아직까지도 부분이 널리 전해지고 있다.

『紅樓復夢』, 陳少海,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진소해의 『홍루부몽』은 총100회로 『홍루몽』120회에 이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1805년에 金谷園에서 간본이 나왔다. 판본으로는 을축본 계열의 판본으로 衍藏판본, 嫻媛齋간본, 平湖寶芸堂 간본이 있다. 1876년에 上海申報館에서 취진판을 본떠 간행한 영인본이 있고 1917년 上海榮華書局석판인쇄본과 1923년 啓新書局本 등이 있다. 北京大學出版社에서 나온 『홍루부몽』은 을축본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紅樓眞夢』, 郭隰澗撰,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홍루진몽』은 일명 『石頭補記』라고도 한다. 총14회로 되어 있으며 이야기가 120회 뒤부터 이어진다. 1940년, 『홍루진몽』은 『中和月刊』에, 자서는 『古學彙刊』 제6기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抄清本, 工楷, 朱絲欄부터 권 머리에 陶洙의 삽화가 있는데 모두 회목과 고시를 담은 것이며 본문에는 평어가 들어가 있다.

『續紅樓夢』, 秦子忱,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진자침의 『속홍루몽』은 모두 30권으로 『홍루몽』120회에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1799년 抱瓮軒 판본이 처음으로 나왔다. 『속홍루몽』판본에는 1882년 抱瓮軒重판본, 經訓堂판본이 있다. 1888년에는 또 善友堂 판본이 세상에 널리 전

하였다. 1921년 상해 大成書局에서 석판본이 나왔고 1940년 상해 新文化書社에서 활자본이 나왔다.

『續紅樓夢新編』, 『續紅樓夢稿』, 海圃主人, 張翟孫,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속홍루몽신편』은 바로 해포주인의 『속홍루몽』을 말하는 것으로, 『속홍루몽』의 속표지 제목이 『속홍루몽신편』이다. 해포주인의 『속홍루몽』은 총40회로 『홍루몽』120회에 이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판본은 1805년 을축본을 저본으로 하여 같은 해의 文秀堂本, 1893년 成德堂本이 있다.

『補紅樓夢』, 嫻孌山樵,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낭현산초의 『보홍루몽』은 모두 48회로 되어있으며 이야기가 『홍루몽』120회 뒤부터 이어졌다. 1820년 庚辰本이 최초 판본이다.

『增補紅樓夢』, 嫻孌山樵,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증보홍루몽』은 총30회로 『보홍루몽』의 속서이다. 1824년에 간본이 나왔다. 『증보홍루몽』의 서문에서 『紅樓圓夢』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홍루원몽』뒤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紅樓幻夢』, 花月癡人,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홍루환몽』은 총 24회로 이야기는 『홍루몽』97회 뒤부터 이어진다. 1843년 疎影齋 간본이 나왔는데 목차와 본문에서 서명을 모두 “홍루환몽”이라 적고 있다. 백지본이 나와 널리 전해졌는데 『홍루몽보』와 인쇄 형식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속표지가 빠져있고 비교적 이른 것으로 보인다.

『綺樓重夢』, 蘭臯居士, 北京大學出版社, 1988 北京

총48회로 되어있으며 『홍루몽』120회에 이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목차에는 “기루중몽”, 첫회와 끝회에는 “紅樓續夢”이라고 했다. 1799-1805년 사이에 판본이 나왔는데 속표지가 빠져있다.

『新石頭記』, 我佛山人, 花城出版社, 1987 廣州

아불산인은 吳趸人이다. 총40회로 1908년 改良小說史의 “소설부문총서”본이 간행되었다. 특이하게 그림이 40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그림 위에 적혀있는 제목은 모두 회목이다.

『新紅樓夢』, 陸士諤, 上海亞華書局, 1928(民國刊本)(박재연 기증본)

실제로 이 속서는 陸士諤의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서 나온 아불산인(吳趸人)의 작품 『신석두기』다. 동일한 회목을 쓰고 있는데 속표지에 「言情小說新紅樓夢」으로 고쳐쓰고 있는 것이다.

▷(以下 紅樓夢의 影響을 받은 作品)

『九雲記』, 無名子鈔本(嶺南大學圖書館藏本), 영인자료, 大邱

無名子添刪의 『新增才子九雲記』(9책, 35회)는 金萬重의 『九雲夢』(18회)을 확대 개편한 白話小說인데 『홍루몽』의 국화시 등 수많은 대목이 활용되고 있다. 판본은 『정을본』을 활용한 것이다. 작자는 미정이나 조선인 혹은 청대 중국인 등의 설이 있다.

『一層樓』, 尹湛納希, 甲乙木譯, 內蒙古人民出版社, 1978 呼和浩特市

몽골어 작품으로 『홍루몽』의 영향으로 나옴.

『泣紅亭』, 尹湛納希, 曹都, 陳定宇譯, 內蒙古人民出版社, 1981 呼和浩特市

몽골어 작품으로 『홍루몽』의 영향으로 나옴.

5. 紅樓夢의 評點資料

『脂硯齋紅樓夢輯評』, 俞平伯輯, 太平書局 1979 香港

俞平伯은 여러 종류의 脂硯齋評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전해지지 않아 일반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없음을 감안하여, 갑술본, 기묘본, 경진본, 갑진본, 척서본 등 5개 판본의 지연재평어를 모아 교정하였다. 『홍루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上海 文藝聯合出版社에서 1954년 초판하였다. 中華書局에서 1960년 수정을 거쳐 출판하였고 1966년에는 다시 재판하였다. 홍콩에서 이를 다시 낸 것이다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陳慶浩, 聯經出版社, 1986 臺北

본서는 『홍루몽』각 필사본의 1회에서 80회까지의 지연재평어를 편집, 교감하였다. 본문이외에도 「서문」과 「편집법례」가 있다. 원래 홍콩 중문대학 新亞書院 홍루몽 연구조와 프랑스 파리 국립 제7대학 동양교원처출판소가 1971년 1월 공

동 출판하였다. 대만 연경출판사는 이를 다시 간행한 것이다.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陳慶浩, 中國友誼出版社, 1987 北京

『新編紅樓夢脂硯齋評語輯校(1972년판)』의 증보 및 수정판이다. 지연재평어를 각 회별로 모아서 기록한 것 이외에도 「색인」을 보충하고 부록으로 「석두기관련 대사건연표」를 추가하였다. 현재 지연재평어 연구 중 비교적 완전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紅樓夢脂評校錄』, 朱一玄, 齊魯書社, 1986 濟南

갑술본, 기묘본, 경진본, 척서본, 몽부분, 열장본, 정장본, 갑진본 등 8종의 판본에 근거하여 각 회 의 頭評 및 眉評, 側評, 夾評 등의 지연재 평어를 포함시켜 집록하였다. 그 중 전4종(갑술본, 을묘본, 경진본, 척서본)은 각각의 영인본을 직접적으로 집록하였고 후4종(몽부분, 열장본, 정장본, 갑진본)은 관련연구자료에서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紅樓夢名家題詠』, 石溪散人, 佩文書社, 1961 臺北

『홍루몽』관련 평론, 비평, 고증을 다룬 조기 저작을 모은 총집이다. 모두 15종으로 구성되어있다. 1915년, 상해 廣益書局에서 4책으로 구성된 석판본을 간행하였다.

『全部百二十回紅樓夢評贊』, 王雪香, 新文豐, 1980 臺北

청대 대표적인 평점비평가 王希廉의 평찬부분을 따로 간행한 것이다.

『硃批評贊石頭記詩畫集』(金玉緣), 天然如意室, 1976 臺北

금옥연 판본에 들어있는 삽화부분을 따로 떼어서 간행한 것이다.

『桐花鳳閣評紅樓夢輯錄』, 陳其泰 評, 劉操南 輯, 天津人民出版社, 1981 天津

陳其泰의 120회 『홍루몽』평 手稿는 현재 杭州圖書館에 있다. 이 평본에서는 『홍루몽』인물에 대한 사상평가, 예술기법 등을 기술하였다. 대략 道光22년을 전후로 하여 평점을 붙인 것으로 보이며 『홍루몽』연구에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

『讀紅樓夢隨筆』, 佚名氏, 巴蜀書社, 1984 成都

이 필사본은 작자 미상이다. 전8권 중 1권은 『홍루몽』의 사상, 예술, 작가에 대한 총평으로 이루어져있고 나머지 7권은 각 회별로 평론하였다. 문학적 관점에서 조설근의 장작예술기법과 홍루몽의 사회적 의의를 평가하고 있어 청대홍학 논

저 가운데 비교적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王伯沆紅樓夢批語匯錄』, 王伯沆, 江蘇古籍出版社, 1985 南京

근대인물 王伯沆의 『홍루몽』에 대한 평어로 1911년부터 1938년까지 20년 동안 지은 것이다. 각종 평어 12,387조목이 들어있고 『홍루몽』의 내용평가, 인물평가, 예술감상, 어휘고증, 판본교감, 문자교정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紅樓夢劉履芬批語輯錄』, 王衛民 輯, 書目文獻出版社, 1987 北京

청대 문학가 劉履芬이 동관각본 『新增批評繡像紅樓夢』에 단 평어 900여 조를 집록한 것이다. 그 중에는 王希廉 평어 200여 조의 초록이 포함되어있다. 이 평어는 『홍루몽』주제, 인물, 예술, 은어, 命名 및 그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론하였다.

『新譯紅樓夢回批』, 哈斯寶, 亦鄰眞譯, 內蒙古人民出版社, 1979 呼和浩特

몽고족문학자인 哈斯寶가 축역한 40회 본의 몽고어 『신역홍루몽』에 대한 평어 및 「서문」, 「독법」, 「총론」과 작자 본인이 그린 11폭의 금릉12차의 초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역본은 1974년 내몽고대학 중문과 몽고어전공부에서 간행한 몽고어 『신역홍루몽』을 저본으로 하였다.

6. 紅樓夢의 傳播資料

『紅樓夢戲曲集』, 阿英編, 九思出版社, 1978 臺北

清代에 나온 희곡작품 10종을 수록하였다. 孔昭虔의 「葬花」, 仲振奎의 「紅樓夢傳奇」, 萬榮恩의 「瀟湘怨傳奇」, 石韞玉의 「홍루몽」, 陳鍾聯의 「紅樓夢傳奇」 등을 수록했다. 원본은 1978년 中華書局 출판.

『紅樓夢子弟書』, 胡文彬編, 春風文藝出版社, 1983 瀋陽

子弟書는 八旗子弟에 의해 만들어 淸音子弟書라고도 한다. 만주족의 민간곡예다. 한사람은 현악기를 연주하고 한사람은 창을 한다. 혹은 혼자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寶黛愛情」, 「劉姥姥」, 「晴雯」 등 37편의 대표작품을 선록하였다.

『紅樓夢說唱集』, 胡文彬編, 春風文藝出版社, 1985 瀋陽

홍루몽의 曲藝전문서로 彈詞開篇, 單弦, 廣東木魚書, 時調 등 104편을 수록하였다.

『紅樓夢曲藝集』, 天津市曲藝團, 春風文藝出版社, 1985 瀋陽

天津市曲藝團이 조설근서거 220주년을 기념하여 공연한 작품을 모은 것이다. 「紅樓夢唱真情」, 「黛玉進府」, 「元妃省親」의 작품 26편이 수록되었다.

『紅樓夢版畫集』, 阿英編, 上海出版社, 1955, 上海

홍루몽의 삽화와 풍속화(年畫), 화선지 그림 등을 약 100여종 모아서 묶은 것이다. 程刻本 18폭, 王希廉評本 4폭, 姚燮評本 10폭, 紅樓夢散套 5폭, 紅樓夢傳奇 1폭, 改琦의 紅樓夢圖詠 19폭, 李鞠齋의 金玉緣석판화 4폭, 紅樓夢年畫 10폭, 화선지 그림 5폭 등이 포함되었다.

『紅樓夢譜』, 清 壽芝撰, 杜春耕 原藏,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은 이른바 袖珍本. 인물도를 체계적으로 그려서 홍루몽을 감상할 때마다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한 책.

『金瓶梅·紅樓夢』(中國古典文學插畫集成四), 瀧本弘之, 遊子館, 2003, 東京

이 插畫集成은 四大奇書와 紅樓夢의 삽화를 모은 책이다. 紅樓夢의 경우는 程甲本, 紅樓夢散套, 王希廉評本, 紅樓夢圖詠 등의 삽화를 수록했다.

『紅樓夢圖詠』, (清)改琦, 藝文印書館, 1957, 臺北

청대 저명한 화가 改琦가 그린 홍루몽 그림, 근현대의 판본이나 현대 번역본 등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朱批評贊石頭記詩畫集』, 1976 臺北

金玉緣판본에 들어간 그림을 별도로 인쇄하고 아래 단락에 영문 번역까지 달아 놓은 책이다.

『曹雪芹家世紅樓夢文物圖錄』, 馮其庸, 三聯書店, 1983 香港

馮其庸의 주편으로 曹雪芹의 가문과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문물자료를 엮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설근의 원적을 遼陽을 보고 있다.

『紅樓夢詩詞曲賦行書字帖』, 林憲民 書, 福建美術出版社, 1988, 福州

홍루몽 시사중에서 35종을 택하여 쓴 行書 글씨본이다.

『紅樓夢詩詞鋼筆字帖』, 14人 書寫, 中國新聞出版社, 1988

만년필체로 쓴 홍루몽의 시사. 현대인들의 다양한 필체를 보여준다.

『紅樓人物百圖』, 戴敦邦,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9, 上海

대돈방의 인물도를 흑백으로 그린 화첩이다.

『紅樓夢百美圖』, 董可玉, 新華出版社, 1989, 北京

홍루몽에 등장하는 100명의 여성인물을 그린 그림.

『紅樓夢詩詞書法藝術』, 石東華, 吉林攝影出版社, 1994

홍루몽에 나오는 시사 작품을 다양한 서체의 붓글씨로 만든 작품집.

『民間珍品圖說紅樓夢』, 王樹村著, 東大圖書公司, 1996, 臺北

책은 대만에서 나왔지만 저자는 대륙사람이다. 1995년 북경에서 쓴 서문에 의하면 문혁 때 많이 없어진 이후 겨우 남아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홍루몽관련 풍속화나 시전지, 자수, 수상화보, 연화화 등을 구하여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曹雪芹紮燕風箏圖譜』, 漢聲雜誌社, 1998, 臺北

조설근의 저술로 『홍루몽』이외에 일찍이 있었다고 전하는 『廢藝齋集稿』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南鶴北鳶考工志』에 근거하여 조설근의 연만드는 과정과 밑그림 등을 재현한 책.

『戴敦邦新繪全本紅樓夢』, 戴敦邦, 上海古籍出版社, 2000

戴敦邦의 칼라판 홍루몽 그림은 각 회별 2폭씩 모두 240폭의 대작이다. 별도로 각회별 내용의 요약이 부록으로 들어있다.

『程十髮·劉巨宅·戴敦邦 精繪紅樓夢插圖』, 上海畫報出版社, 2001홍루몽의 현대화가로 유명한 세명의 작품을 일부 선별하여 수록한 45쪽짜리 화보집이다.

『石頭記微刻』, 彭祖述, 長安出版社, 2003 長春

전 80회 부분의 원문을 정교하게 돌에 새긴 것인데 한 회의 내용을 하나의 돌에 새겨 넣었다. 정교한 조각을 한 돌을 사용하여 회목은 隸書體로 하고 본문은 行草書를 썼다. 확대경으로 보아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 微刻이라고 한 것이다.

『紅樓棧譜』揚州 廣陵書社 출판, 廣陵古籍刻印社 인쇄

揚州 국제홍루몽회의에 참가했다가 구입한 詩箋紙. 『玉壺山人改琦寫』의 서명이 있는 판화를 찍은 것이나 인쇄상태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後記>

필자가 국내에서 『홍루몽』 전시회를 기획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지만 그 동안 좋은 기회가 없었다. 최근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국학고전연구 지원과제」의 일환으로 樂善齋本紅樓夢翻譯叢書(총 6종, 8책)를 校註本으로 간행하게 되었으며 또 이를 기회로 「紅樓夢의 傳播와 翻譯」을 主題로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와 共同으로 國際紅樓夢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기회에 일부 『홍루몽』 번역 자료를 국제회의장 전시회에 출품하는 하는 한편 고려대 중국학연구소에서 별도의 「홍루몽 학술자료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선문대학교의 朴在淵교수와 연구원 및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의 연구원과 조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조선후기 문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紅樓夢』은 高宗연간인 1884년을 전후하여 『홍루몽』 120회 완역본을 내었고 5종의 續書까지 번역을 내는 등 우리나라는 中國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成果를 거두었지만 20세기이후에는 일부 번역본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연구업적이나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 2004년 가을에는 中國 揚州에서 曹雪芹逝去 240周年을 紀念하여 國際紅學會議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므로 韓國에서의 紅學會議와 『紅樓夢』資料展示會는 나름대로 學術史的 意味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목록은 당시 전시회를 위하여 마련한 『목록 및 해제집』을 일부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국내 紅學연구의 진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이것을 계기로 관련 학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研紅軒/ 2004. 12)